

## \* 영화 <부산행>과 인간의 도덕성 \*

강지은(건국대학교)

영화 부산행은 온갖 윤리적 딜레마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고 관객에게 말을 건다. 자본에게 윤리란 있는 것인가, 인간의 도리란 무엇인가, 인간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결국 우리가 바라고 희망해야 할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 #자본에게 윤리란 있는 것인가

영화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이익추구가 가지고 온 무서운 재앙의 암시로부터 시작한다. 차에 치여 죽었을 것 같은 사슴이 빨건 눈으로 벌떡 일어난다.

주인공 석우(공유)는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다. 실물화폐가 없어도 돈이 돌고 도는 자본주의의 심장이 바로 증권회사다. 석우는 다 쓰러져가는 바이오회사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 잘 나가는 회사로 보이게끔 한 후에 주식 값을 올리고 매도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 문제는 그 바이오회사가 실험하던 동물들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것이 변이가 되어 인간에게 전염이 되고 만 것이다. 그 바이러스의 수준은 조류독감이나 메르스의 공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공포 그 자체가 되고 만다. 사람들은 좀비로 돌변해 서로가 서로를 감염시키고 전국은 통제되지 않는 무질서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로 재앙을 맞는다.

석우가 부하직원에게 바이오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고 하자 부하직원은 자신들 때문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을 걱정한다. 하지만 석우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걱정했어?’라며 핀잔을 준다. 그게 자본의 윤리다. 자본주의는 최소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거기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두부 만들어 팔면서 시장의 두부장사 걱정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일해서 시간당 대가를 받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빈층에 속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윤리는 자본에 무게중심을 두지 결코 빈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이 만들어낸 고용의 악랄한 형태는 비정규직, 일당, 시급, 분급으로 이루어진다.

주인공 석우가 사무실에서 먹고 있는 햄버거는 단순히 바쁜 직장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의 윤리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맥도날드는 세계적 프랜차이즈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며 그곳의 미숙련 최저 시급 노동자는 자본주의 세계의 밑바닥을 지탱하면서도 언제나 대체 가능한 산업

예비군이다.

## # 인간의 도리란 무엇인가 -- 용석(고속버스회사 간부) vs. 수안(석우의 어린 딸)

###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자기중심적 행동을 하는 용석

영화 부산행에서 최악의 캐릭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너나 할 것 없이 고속버스 회사 간부라고 자칭하며 저 살자고 남을 좀비에게 밀어버리는 용석이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리도 얄밟고 사악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라고 저러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용석의 행동은 이기적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먼저 위한다는 것이 큰 죄는 아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것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이기심이란 나도 모르게 사회의 약자를 짓밟는 독일 될 수도 있다. 질서를 지키며 내가 먼저 줄을 섰지만 신체적 약자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거리에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느라 교통이 좀 막힐 때, 내 갈 길이 좀 오래 걸려도 나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친 적이 있던가.

용석의 행동 중에서 자기 살자고 타인을 좀비에게 떠밀어버리는 장면들은 극히 혐오스럽다. 그러나 영화의 막바지에 다다라 다른 칸에서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고 다가오는 석우와 그 일행이 자신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칸으로 오는 것을 막자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석의 주장에 동조한다. 늘 그 ‘어쩔 수 없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어쩔 수 없이’라는 수식어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다.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죽음으로 내 몰아도 그건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도 남을 돕고 어쩔 수 없어도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구하기도 한다. 영화의 동생 할머니는 언니 할머니가 좀비에게 물려 다 죽게 생겼는데 문을 봉쇄해버린 자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다. 언니,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기적인 자들이 봉쇄한 문은 언니를 그리워하는 인간애를 막지 못했다.

### 아이지만 어른을 뛰어넘는 수안의 이타심

수안이는 엄마와 떨어져 외롭고 슬픈 생일을 맞았다. 어린 아이는 엄마와 이불 속에서 몰래 통화하다가 늦게 귀가한 아빠가 건네는 선물을 보고 어이없어 한다. 왜? 어린이날 같은 걸 이미 받았으니까. 이혼 소송 중인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수안이는 엄

마를 선택한 것일까? 엄마를 만나러 혼자라도 기차타고 부산으로 가겠단다. 난감한 아빠는 혼자라도 가겠다는 아이를 위해 마지못해 부산행 기차에 함께 오른다. 영화에서 수안은 이기적인 어른인 아빠의 행동과 언행에 도덕책에서 배운 윤리를, 인간의 도리를 대입시키며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라고 묻는다. 좀비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통로칸의 자리가 나서 아빠가 앉으라고 해서 앉았지만 수안은 이내 할머니에게 양보를 한다. 수안의 아빠는 이럴땐 구지 양보 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수안에게 할머니는 효를 실천해야 할 대상이고 실천할 뿐이다. 또 대전역에서 몰래 투자자가 알려준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도 수안은 우리만 살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자고 하는 이타심을 보인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수안이 아빠에게 진정한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인간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는가

세상은 도무지 안전한 곳이 없다. 강도, 강간, 살인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다. 삶의 버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일 경우가 많다. 노인 고독사만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1인가족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 <부산행>은 좀비라는 극단적 패닉상태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한 편으로 두려움의 극복방법을 던지지 암시하고 있다. 좀비는 불가항력의 파괴력이다. 하지만 석우 일행은 미천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두려움 앞에 나선다. 그래 맞짱 한 번 시원하게 뜨는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혼자서는 안 되지만 우리니까 가능하다. “내가 앞에 설게 내가 뒤에 서”. 영화 속 마동석이 좀비들 앞으로 나서며 하는 말이다. 이는 희생이지만 함께이기에 가능한 희생이다. 마지막에 결국 마동석은 자신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살린다.

함께 하는 일엔 늘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나만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내가 때론 네가 희생할 수도 있다. 때론 내가 도움을 받고 때론 네가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서로 돕는 공동체는 탄생한다. 공동체에게 다가온 두려움은 이제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다. 우리가 늘 마주서고 있는 두려움은 개인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힘겨울 뿐이다. 함께라면 고되지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 우리가 바라고 희망해야 할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우리는 영화 <부산행>의 마지막과 마주한다. 석우는 딸과 기차에서 생사를 함께 한 임신부를 살리고 그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마지막에 맞잡은 임신부와 수안의 손은 원래 일면식도 없던 낯선 어른 여자와 어린 아이였지만 앞으로 이들은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둘이 잡은 손으로는 믿음의 전율과 함께 노래가 흐른다. “꽃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니.....(알로하오에)” 수안이는 엄마를 찾을 것이고 임신부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의 인연은 친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해야 할 곳은 분명 혈육을 뛰어 넘어 공동체가 만드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일 것이다.